

1 상징천황제와 미국

본지 편집위원 박진우의 특집

박진우



■ (위) 히로히토와 맥아더(1945년 9월 27일)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전통 복장의 히로히토, 항복선언 후 황궁 앞, 사열 중인 히로히토.



1. 머리말

일본 근현대사에서 미국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페리내항은 근대 일본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은 ‘자유의 성지’이자 모더니즘의 표상으로 이상화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을 ‘귀축미영’(鬼畜米英)이라 부르면서 혐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상대화하고 사 이판옥쇄, 오키나와전투, 가미카제특공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등으로 상징되듯이 일본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다. 그럼에도 패전 후에는 미국의 ‘관대’한 점령지배와 강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오늘날까지 가장 충실한 친미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시미 순야(吉見俊哉)도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이라크 무력침공 이후 전세계적으로 반미적인 추이가 나타나는 속에서도 일본은 특이할 정도로 친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인의 친미의식은 패전 후 일본의 점령지배에 헤게모니를 잡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서 비롯되어 반세기 이

* 지은이 | 박진우 계명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쓰쿠바대학(筑波大学) 지역연구과에서 ‘메이지천황의 전국순행과 민중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은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사회학연구과에서 일본민중사상사 연구의 권위자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의 지도를 받고 ‘천황제이데올로기와 배외적 내셔널리즘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근현대사이며 저서로는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와 민중』(제이앤씨, 2003), 『21세기 천황제와 일본』(논형, 2006) 등이 있다. 영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에 재직 중이다.

상에 걸쳐 구조화되어 온 것이다.¹⁾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한반도의 남북분단 이후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아시아의 개발경제를 지탱하는 중핵으로 삼았다. 그러한 결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기지의 역할은 한국과 대만, 오키나와가 부담하게 되고 일본은 경제발전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처리, 그리고 전후책임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의 '양해'와 '묵인' 아래 애매하게 봉인되고, 근린아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의 청산이라는 과제가 망각되거나 혹은 왜곡되어 버렸다.

이 문제를 천황제와의 관련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모순의 근원은 한층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모한 전쟁을 치렀던 배경에는 현인신(現人神) 천황에 대한 숭배와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천황제이데올로기가 있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 특히 심리전에서 이러한 천황제이데올로기가 가지는 효용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점령통치에서 천황을 처벌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결국 천황제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존속하게 되었고, 천황은 전쟁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평화주의자로 미화됨으로써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역사관의 근원적인 뿌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미국이 미친 영향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천황이 도쿄재판에 회부되어 'A급 전범'과 함께 처벌을 받고 천황제가 폐지되었다면 과연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이 되풀이해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을까. 천황이 도쿄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형태로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고 퇴위하여 칩거에 들어갔다면 일본인의 역사인

1)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2006년 10월 15일자에 의하면, 2006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세계 14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은 영국이 56%, 프랑스가 39%, 독일이 37%인 데 비하여 일본은 63%로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吉見俊哉, 『親米と反米』, 東京: 岩波新書, 2007, 8쪽)

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전쟁책임을 면책받고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장면은 결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그 후손들이 히틀러를 평화주의자로 칭송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왔으며 히로히토 사후에도 그를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는 ‘왜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천황이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평화주의자라는 새로운 신화 속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의 근원이 되었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뒤튼린 현상과 모순이 냉전 체제 하에서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전후 천황제와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일본의 전쟁책임이나 식민지 지배의 망각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보고자 한다.³⁾

전후 천황제와 미일관계에 관해서는 특히 쇼와천황 사후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료 발견과 공개 등으로 연구가 일거에 진전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쇼와천황의 전쟁지도와 전쟁책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합작’에 의해 쇼와천황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고 천황제가 온존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한층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최근의 미국과 일본에서의 연구

2)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역사교과서나 언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수우파들의 역사왜곡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평화주의자’ 쇼와천황의 ‘성덕(聖德)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일인 4월 29일을 ‘미도리의 날(みどりの日)’에서 ‘쇼와의 날(昭和の日)’로 변경하는 개정축일법이 2006년 5월 13일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곧 천황제 신화에 의거한 ‘기원절(紀元節)’을 ‘건국기념일’로 변경(1966년 축일법 개정. 1967년부터 시행), 천황의 재위기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는 ‘원호법’의 제정(1979년 성립), 그리고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국가·국가법’ 제정(1999년 성립)에 이은 조치로서 일본은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이며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천황에 대한 경애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쇼와천황의 생애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황실과 국민의 유대를 깊이 맺는 것”을 목적으로 도쿄도(東京都) 다치가와시(立川市)에 쇼와천황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규모는 1,000평방미터, 건설비는 약 14억 엔에 달한다.

3) 전후 미일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이국간주의 증후군(二國間主義症候群)’이라 부르고 그것이 냉전 하에서 역사의 기억을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캐롤 글럭(Carol Gluck), 강상중,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정담(鼎談) 참조. キャロル グラック・和田春樹・姜尚中, 『戦後の(日米関係)を再考する』, 『環』vol. 8, 特集『(日米関係)再考』, 2002, 冬.

를 중심으로 점령기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상징천황제의 탄생 과정을 재검토
 하여 그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냉전체제가 심화되고 미일
 안보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작’으로서의 천황제가 어떤 역
 할과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헌법 제
 1조의 ‘상징’ 천황 규정과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일종의 ‘교환조건’으로 성립
 된 것이며 그것은 곧 상징천황제와 미일안보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미일안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지켜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징천황제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상징천황제는 자신의 안전한 존속을 위해서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천황제는 전후 ‘상징’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일본 내셔널리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때로는 반미내셔널리즘의 표상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탄생의 기원부터 친미적인 속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점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일 간의 ‘포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천황제의 대미의존적이고 친미적인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주로 미일안보
 와 천황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전후 미일관계 속에서 천황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
 기는 작업은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인식 문제의 근원에 천황제가 있다
 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현대사
 에서 미국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점령기의 천황·천황제와 미국

1990년대 이후 근현대천황제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인된 천
 황의 전쟁책임이라는 문제가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는 천황이 전쟁 중의 정책결정 과정과 군사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를 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천황의 전쟁책임이 어떻게 해서 불문에 붙여졌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여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운 사료의 발굴과 문서 공개 등으로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미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상호 영향 속에서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적
공동체의 형성으로 움직임이 진행하고 있다”⁴⁾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90년대 이후 점령기 천황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때마침 냉전체제의 붕괴와 거의 같은 시기에 히로히토가 사망했다는 점과 절묘
한 연관성이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제까지 봉인되어 왔던 희생자·피해
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전쟁과 기억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쇼와천황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본열도를 풍미했던 과잉자식은
역사학자들에게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함께 천황제 문제를 재검토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천황제에 관한 새로운 사
료와 문서가 발굴·공개되면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⁵⁾ 미국의 경우,
존 다워(John W. Dower)와 허버트 빅스(Herbert P. Bix)⁶⁾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에서의 일본연구를 주도하는 베트남전쟁 반전세대로서 기존의 근대화론자

4) 吉田裕, 「昭和天皇の戦争責任をめぐって: 成果と確認と歴史家としての反省」, 『季刊運動(経験)』第10号, 2003을
참조.

5) 鶴見俊輔 外編, 『天皇百話』上下, 東京: 筑摩書房, 1989; 伊藤隆 外編, 『牧野信顯日記』, 東京: 中央公論社, 1990
; 木下道雄, 『側近日誌』, 東京: 文芸春秋社, 1990; 入江爲年 監修, 『入江相政日記』, 全6卷, 東京: 朝日新聞社,
1990~1991; 『高松宮日記』, 全8卷, 東京: 中央公論社, 1995~1997; 粟屋憲太郎 編, 『史料日本現代史』, 東京: 大月
書店, 1990; 中村政則·山極晃 編, 『史料日本占領1—天皇制』, 東京: 大月書店, 1990; 寺崎英成·マリコ テラサキ
ミラー, 『昭和天皇独白録—寺崎英成御用掛日記』, 東京: 文芸春秋, 1991 등과 같이 천황의 전쟁책임과 관련된 귀중
한 사료가 거의 1990년을 전후해서 공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사료에 관한 해설은 吉田裕, 『新資料に見る
昭和天皇像』, 『歴史評論』496号, 1991. 8. 참조.

6) ジョン ダワー, 『敗北を抱きしめて』上下, 東京: 岩波書店, 2002(원제는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허버트 빅스, 『昭和天皇』上下, 東京: 中央公論社, 2002(원제는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들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는 ‘재해석학과’(revisionist)로 분류되고 있다.⁷⁾ 그들의 최근 연구는 상징천황제가 미일합작으로 탄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위는 패전 직후 일본의 정치·사회 상황과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점령정책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포용’하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빅스는 한층 더 격렬한 어조로 천황의 전쟁책임과 미일합작의 ‘음모’를 규명하고 있다. 빅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 하자면, 미국의 지일파와 맥아더, 그리고 그의 측근들과 일본의 지배층이 천황제 존속과 천황 면책을 위해서 천황의 이미지를 재창출하는 작업은 “일본 국내에서의 사회적 격변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심지어는 증언의 분식(粉飾)과 증거의 인멸, 그리고 역사왜곡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사업”이었다.⁸⁾

다위와 빅스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천황을 군국주의의 희생자로 보거나 미일전쟁을 승자와 패자의 입장에서 보는 종래의 관점을 거부하고, 일본의 전쟁정책 그 자체가 천황을 주체로 하는 시스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천황의 전쟁책임을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가 그 면책에 가담한 미국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전쟁에서 천황이 능동적·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90년대 초반부

7) 中村政則, 「現代歴史学の課題：アメリカの日本近現代研究1980~2000」, 『年報 日本現代史』 第8号, 2002, 5.

8) 빅스, 『昭和天皇』 下, 230쪽. 쇼와천황이 능동적 군주로서 정책결정과 군사적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풍부한 사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빅스에 대하여 웨츨러(P. Wetzler)는 역사를 쓰는 것과 인간을 단죄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쇼와천황의 행동과 사상을 개인의 가치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해명하고자 하여 천황의 전쟁개입을 부정하고 전후에도 천황의 면책을 위한 음모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터 웨츨러, 『昭和天皇と戦争』, 東京: 原書房, 2002(Peter Wetzler, *Hirohito and War: Imperial Tradition and Military Decision Making in Prewar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이 밖에도 쇼와천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빅스의 연구를 비롯하여 서구에서의 쇼와천황론을 총괄적으로 비판한 책으로 森山尙美·피터 웨츨러, 『ゆがめられた昭和天皇像』, 東京: 原書房, 2006이 있다.

터 일본에서의 근현대사 연구 성과⁹⁾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다. 미국의 천황제 온존·이용이라는 정책에 따라 상징천황제가 탄생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다케다 기요코(武田清子)의 선구적인 연구¹⁰⁾를 비롯하여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真), 다카하시 히로시(高橋紘), 다케마에 에이지(竹前栄治), 고세키 쇼이치(古関彰一) 등의 선행연구¹¹⁾가 있으며, 이들의 연구가 미국에서의 천황제 연구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최근에는 미국의 천황제 이용이라는 방침이 일찍이 1942년 6월의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종래에는 1942년 11월 미국무성고문 혼베크(Stanley Hornbeck)의 각서가 가장 빠른 사례¹²⁾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0년에 후지타니 다카하시가 워싱턴 교외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각서를 발견하면서 이보다 빠른 1942년 9월의 단계에 천황제 이용이라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³⁾ 이후 2004년 가토 데쓰로(加藤哲郎)는 같은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 : 전략정보국)의 기밀문서 ‘일본계획’에서 라이샤워 각서보다 3개월 앞선 1942년 6월의 단계에서 “일본의 천황을, 신

9) 吉田裕, 『昭和天皇の終戦史』, 東京: 岩波新書, 1992; 山田朗, 『昭和天皇の戦争指導』, 東京: 昭和出版社, 1990; 千本秀樹,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東京: 青木書店, 1990; 藤原彰, 『昭和天皇の15年戦争』, 東京: 青木書店, 1991; 栗屋憲太郎編, 『戦争責任と戦後責任』, 東京: 朝日新書, 1994 등 참조.

10) 武田清子, 『天皇観の相剋』, 東京: 岩波書店, 1978.

11) 五百旗頭真, 『米国の日本占領政策』 上下, 東京: 中央公論, 1985; 古関彰一, 『新憲法の誕生』, 東京: 中央公論社, 1989;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 東京: 岩波新書, 1989; 高橋紘, 『象徴天皇の誕生』, 東京: 角川文庫, 2002; 竹前栄治, 『占領戦後史』, 東京: 岩波書店, 1992; 小倉裕兒, 『象徴天皇制の成立: 対日占領政策と憲法制定過程』, 『環』vol. 8, 特集『日米関係』再考, 2002, 冬 참조.

12) 1942. 11. 19. 미국무성고문 혼베크의 극동과 앞으로의 각서에서 “우리의 전쟁수행 노력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국 천황에 관하여(아마 황거와 황실관계 신사 등에 관해서도) 취해야 할 방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래로 국무성영토소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되었다(1943. 7. 30-12. 22). 『ホーンベックの極東課宛書』, 中村政則·山極晃編, 『史料日本占領 1—天皇制』, 東京: 大月書店, 1990.

13) タカハシ フジタニ, 『新史料発見 ライシャワ-元米国大使の傀儡天皇制構想』, 『世界』, 2000. 3. 이 각서에서 라이샤워는 1942년 9월 육군성 관계자에게 “전쟁중결 후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 귀중한 아군, 또는 괴뢰(puppet)로서 도움이 되도록 천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쟁에서 천황이 상처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중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평화의 심벌**로서 이용할 것”(강조—인용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¹⁴⁾ 여기서 가토는 일본국헌법 제1조의 ‘상징천황제’와 제9조의 ‘전쟁포기’가 일종의 교환조건으로 성립되었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관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미국무성 외교자료 집(FRUS)이나 3성조정위원회(SWNCC)의 결정문서와 점령군 GHQ자료에서의 천황론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OSS의 조사분석부(R&A) 극동과의 문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¹⁵⁾

OSS의 문서는 그만큼 미국의 천황제 이용방침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1990년에 공개된 『테라사키 히데나리의 어용괘 일기』(寺崎英成御用掛日記)¹⁶⁾에서는 점령정책에서의 천황 면책과 천황제 온존, 천황의 ‘상징’규정 등과 관련하여 맥아더의 군사비서 보너 펠러스(B. Fellers)가 핵심적인 인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모았다. 히가시노 마코토(東野真), 오카모토 시로(岡本嗣郎) 등의 연구는 맥아더기념관, 후버연구소, 후버대통령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펠러스의 귀중한 사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펠러스가 일본의 인맥관계를 심분 활용하여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에 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⁷⁾ 가토 데쓰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최근 기밀이 해제된 OSS문서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펠러스가 맥아더의 사령부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OSS의 ‘심장’에 해당하는 심리작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943년에는 OSS ‘심리전 계획그룹’의 멤버 리스트에 네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 加藤哲郎, 「1942年6月米国『日本プラン』と象徴天皇制」, 『世界』, 2004. 12. 원문은 “To use the Japanese Emperor(with caution and not by name) as a peace symbol”로 되어 있다. 또한 ‘일본계획’에 대한 맥아더의 1942년 8월 5일자 메모가 발견되면서 맥아더가 이 문서를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메모에 대하여 맥아더가 천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흔적은 없다.

15) 加藤哲郎, 『象徴天皇制の起源：アメリカの心理戦「日本計画」』, 東京：平凡社新書, 2005.

16) 寺崎英成・マリコ テラサキ ミラー, 『昭和天皇独白録 御用掛日記』, 東京：文芸春秋, 1991.

17) 東野真, 『昭和天皇 — 一つの独白録』, 東京：NHK出版, 1998 ; 岡本嗣郎, 『陛下をお救いなさいまし：河合道とボナフェラス』, 東京：集英社, 2002 등.

즉 펠러스가 맥아더의 천황관에 따라 일본국헌법의 작성을 도운 것이 아니라 워싱턴의 OS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기정방침을 맥아더에게 충실하게 실행시켰다는 것이다.¹⁸⁾ 물론 가토가 발견한 사료와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한층 뒷받침하는 것이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일본 점령에서의 천황 면책과 천황제 이용은 점령기 천황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 반론하기 어려운 통설이 되었다.¹⁹⁾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상징천황제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단계의 우여곡절이 있으며, 가토가 발견한 문서가 전후 천황제 존속에 직결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²⁰⁾ 천황을 ‘평화의 심벌’로서 이용한다는 방침이 미국의 점령정책에서 활용되고 전후 일본에서 ‘상징천황제=평화주의’, ‘히로히토=평화주의자’라는 등식의 신화가 정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²¹⁾ 점령기 GHQ가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부각시키고 전쟁책임을 전적으로 군국주의자들에게 전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점령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천황 면책을 위한 포석이었지만, 그것이 이후의 일본과 미국에서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에서도 논증되고 있다. 빅스는 루스 베

18) 加藤哲郎, 『象徵天皇制の起源：アメリカの心理戦』日本計画Ⅱ, 237~238쪽.

19) 가사하라 히데히코(笠原英彦)는 이러한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천황제의 단계적 존속과 장기적 폐절을 기도한 미국 국무성과 GHQ의 의향은 맥아더에 의해 ‘황통단절이라는 시한폭탄’으로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점령정책 하에서 황실의 축실제도 폐지와 11궁가의 황적이탈을 들고 있는데, 가사하라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천황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 ‘여성천황’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황위계승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笠原英彦, 『象徵天皇制と皇位繼承』, 東京：筑摩書房, 2008.

20) 『天皇を平和の象徴に 米国機密文書で利用』, 『共同通信』 2004. 11. 7.

21) 다만 남은 과제는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누가 발안하고 또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치적 주류에 흘러들어 갔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가토는 특히 OSS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우수한 학자들이 결집되어 있는 조사분석과(R&A)의 극동과 일본반장 찰스 퍼즈가 입안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내용이 조지프 그루(Joseph Grew)와 같은 친일파의 천황에 대한 ‘외경(畏敬)이나 애착은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천황의 상징적인 측면의 이용가치를 강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加藤哲郎, 『象徵天皇制の起源—アメリカの心理戦』日本計画Ⅱ, 239쪽.

네디트가 일본 항복 이전에 작성한 『일본인의 행동패턴』을 거론하며 그것이 천황을 미국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²²⁾ 최근에는 미치바 노부치카(道場信親)가 『국화와 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한층 심층적으로 논증하고 있다.²³⁾

미치바의 분석에 의하면 『국화와 칼』은 명백히 ‘점령’과 ‘냉전’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교묘하게 이런 전후의 역사과정을 은폐(또는 개시(開示))하고 ‘소거’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자기상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가진 텍스트로 정착했다는 것이다.²⁴⁾ 그것은 레드퍼지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령군이 엄격한 검열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점령정책이 상징천황을 일본국민들에게 수용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교묘하고도 재빠른 시책으로 여론을 유도했으며, 냉전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천황제 논의’는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다케야마 아키코(竹山昭子)의 지적과도 부합한다.²⁵⁾

미치바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46년 미국에서 출판된 『국화와 칼』이 1948년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는 과정을 보면 점령군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²⁶⁾ 여기에는 대상으로서 타자가 등장할 여유가 없으며 오로지 ‘일본인’만이 등장하여 마치 그것이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탈식민지화의 과정을 은폐하고, 동질적이고 초역사적인 ‘일본인’을 완성된 패키지로서 제공하는 것이며 ‘단일민족국가’의 ‘전통’과 상징천황제를 일체화된 세트로서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국가’ 신화는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가 파악한 것처럼 ‘내발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외발적’인 요소와의 합작에 의한 것

22)ハーバート ピックス, 『歴史の謎としての昭和天皇』, 『年報日本現代史』 4号, 1998, 331쪽.

23) 道場信親, 『占領と平和 : 〈戦後〉という経験』, 東京 : 青土社, 2005.

24) 道場信親, 『占領と平和 : 〈戦後〉という経験』, 53쪽.

25) 竹山昭子, 『アメリカ占領期マスメディアの「天皇制論議」』, 『メディア史研究』 第5号, 138쪽.

26) 道場信親, 『占領と平和 : 〈戦後〉という経験』, 제9장 참조.

이며 여기에 ‘상징’으로서의 천황제가 문화론의 근거로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²⁷⁾

호주의 일본 연구가 개번 매클랙(Gavan MaCormack)도 최근의 저서 『중속 국가 일본』에서 이와 같이 『국화와 칼』에서 상징되는 기본적인 패턴은 현대 일본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매클랙은 현대 일본의 대미종속적인 지향과 아시아를 경시하는 태도의 원점이 점령기 미국의 의도에 의해 뿌리를 내렸다는 점을 전제로 2000년대에 들어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대미 종속화가 한층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 천황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천황을 받드는 특별한 나라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일본인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시(戰時)에는 문부성을 중심으로 ‘황국사관’을 중핵으로 하는 국체관념을 국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정책이 동원되었으나 패전 후에는 이러한 일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미국의 전시정보국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네딕트는 장기에 걸쳐서 일본을 미국에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문화의 기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히 비아시아적인 천황 중심의 ‘문화패턴’이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면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이 심리적으로 아시아와 거리를 두면 결코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계속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미국에서 볼 때 일본이 패전 후에도 이 신화에 고집하도록 해 두는 것이 점령정책상 득책이었다”는 것이다.²⁹⁾

실제로 점령군은 흔히 일본의 우익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일본적’인 것으로

27) 道場信親, 『占領と平和 : 〈戦後〉という経験』, 25쪽, 48쪽, 227쪽 등 참조.

28) 개번 매클랙, 『중속국가 일본』, 이기호·황정아 옮김, 창비, 2008(원제는 *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일본에서는 『属国』(東京: 凱風社, 2008)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29) 개번 매클랙, 『중속국가 일본』, 39~40쪽.

간주되는 신화나 전통을 뿌리째 제거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다. 점령군은 국가 신도를 해체하기 위해 1945년 12월 15일 ‘신도지령’(神道指令)을 내렸지만 천황의 신권적 권위를 지탱하는 ‘3종의 신기(神器)’를 몰수하거나 이세신궁과 같은 ‘성역’(聖域)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듬해 정초에는 천황이 스스로 신격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역대천황의 신격(神格)까지 부정된 것이 아니었다. 매년 황실의 조상신에게 햇곡식을 바치는 11월 23일의 신상제(新嘗祭)는 ‘근로감사의 날’로 바뀌었을 뿐, 그것을 폐지시킨 것은 아니었다. 야스쿠니신사도 국가의 관리에서 분리되었을 뿐 전몰자의 영령을 기리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부정되지 않았다.³⁰⁾ 점령군은 천황을 면책하고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한 후에도 일본을 계속해서 친미국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천황제의 ‘신화’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 정통성을 보증하는 존립근거로서의 신도의 ‘성역’에도 손대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치바와 매킨톡의 연구는 점령기 천황제와 미국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냉전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구조화되어 갔다고 보는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주로 천황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작’이라는 관점에 주목한 나머지, 일본 점령 이후의 역사과정 속에서 냉전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이 비교적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대천황제는 물론이고 전후에 새롭게 탄생하는 상징천황제의 존속이 근린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책임을 은폐하고, 반대로 차별과 멸시를 구조적으로 유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점, 그런 구조적 모순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1990년대까지도 그다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³¹⁾

30) ベン＝アミー シロニー, 『母なる天皇』, 大谷堅志郎 譯, 東京: 講談社, 2003, 314~316쪽(원제는 *The Enigma of the Empire Divinity and Gender in the Japanese Monarchy*).

미치바와 매크맥의 연구는 그런 점에서 종래의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가 비교적 일찍부터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었다. 그는 1989년 쇼와천황의 죽음을 전후해서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평화주의자' 천황에 대한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 배경과 그것이 이후의 역사과정에서 남긴 부(負)의 유산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사카이는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태평양전쟁의 승리와 일본 점령을 일본에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개심시키는 데 성공한 이야기로 위치 짓고 있지만, 그 민주화의 내실을 보면 당시 미국정부의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 그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되고 있었다는 점, 미국이 지극히 현실적인 타산에 의해 천황을 면책하고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애매하게 만든 결과, 전후 일본정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는 점, 그후 냉전 상황에서 미국은 구 전범의 부활을 묵인하고 그들을 군사전략의 협력자로 만들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극동경영'에 제후했다는 점, 그 반대급부로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점령헌법을 탄핵하는 보수정치가 현실정치의 차원에서 헌법을 강요한 나라의 비호에 의존하는 기묘한 공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들을 날날이 비판하고 있다.³¹⁾

미치바가 전후 냉전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점령'의 경험이라고 보고, 이를 일국사(一國史)적으로 파악하거나 각기의 국민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31) 이에 관해서는 이 글 주 3)의 '정답'이 시사적이다. キャロル グラック・和田春樹・姜尙中, 『戦後の(日米関係)を再考する』

32) 사카이 나오키, 이득재 옮김, 『자기도취로서의 천황제』, 『사산되는 일본어·일본인』, 문화과학사, 2003, 159쪽 ;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옮김, 『누가 아시아인가』 및 『공감의 공동체와 공상의 실천계』,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창비, 2003, 59쪽, 101~102쪽 참조.

할 수 있다. 즉 미치비는 점령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 남북한의 분단과 남한에서의 친일파 부활과 군사독재정권 출현, 나아가 오가사와라(小笠原), 가라후토(樺太), 지시마(千島), 대만까지도 시야에 넣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³⁾ 그는 이런 시점이 결여되어 있으면 전후 일본이 단일민족국가를 표상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제국'의 기억을 급속하게 망각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역사적 문제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요시미 순야의 『친미와 반미』(親米と反米)에 관한 연구는 천황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의 '포용'을 냉전체제와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목된다. 요시미는 '정치적 무의식'³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의 '미국' 수용과 반발을 한국, 대만, 필리핀, 태평양제도 등과 같은 동아시아의 횡단성 속에서 생각하고, 그러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문제를 패전까지 아시아에서의 '일본' 식민주주의와의 연속성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패전 후 천황제와 관련해서는 제2장에서 '시각적 체계'라는 표상론의 방법을 구사하여 맥아더, 천황, 매춘부라는 3가지 위상의 '신체'가 점령기의 문화지정학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점령기 전체를 통해서 맥아더의 신체가 '현재화'(顯在化)되지 않는 대신에 히로히토의 신체가 전면에 나타나면서 천황의 표상과 점령자의 시선과의 예정조화적인 '포용'이 성립했으며, 맥아더와 천황 이상으로 존재감을 명료하게 나타낸 신체로서의 매춘부들은 맥아더와 천황의 표상이 애매하게 은폐한 문제를 노골적인 형태로 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³⁵⁾

33) 道場信親, 『占領と平和 : 〈戦後〉という経験』, 서론 참조.

34) '정치적 무의식'이란 프레드릭 제임슨의 개념을 빌린 것으로 전후 일본인의 일상 의식 속에 있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무의식적인 차원을 말하며 이런 무의식은 철저히 정치적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吉見俊哉, 『親米と反米』, 25쪽).

35) 吉見俊哉, 『親米と反米』, 25쪽, 87쪽.

여기서 점령군(맥아더)의 ‘불가시화’와 쇼와천황의 ‘가시화’라는 요시미 순야의 분석은 상징천황제가 일본의 고유한 전통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하는 데도 시사적이다. 예를 들면 점령기 수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던 천황의 전국순행도 요시미가 말하는 천황의 ‘가시화’와 점령군의 ‘불가시화’라는 ‘시각적 체계’로 이해할 수가 있다. 점령기 천황의 전국순행은 그야말로 전 국민의 관심이 천황에게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서 점령군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천황의 행렬을 대하는 군중의 모습은 패전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치 전승국 군주의 퍼레이드에 열광하는 국민의 모습 그것이었다.³⁶⁾ 천황의 순행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일본’ 건설을 위한 국민 통합이 재차 강화되는 것은 점령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으며, 여기서 천황은 ‘괴뢰’(puppet)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GHQ가 점령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용해서 천황 순행을 배후에서 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CIE(민간정보교육국) 국장 켄 다이크 준장의 다음과 같은 의견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내지에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이기심에서 암거래, 암시장이 횡행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일본인의 도덕심 저하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상태를 개선해서 암거래가 필요 없는 식량의 정당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진심을 각성시키고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맥아더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 오로지 천황만이 해낼 수 있는 일(강조—인용자)이며, 생각건대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천황은 친히 내지를 순행하여 혹은 탄광을, 또는 농

36) 전후 천황의 전국순행에 관해서는 清水幾太郎, 「占領下の天皇制」, 『思想』 358号, 1953, 6 ; 鈴木レヅ子, 「天皇行幸と象徴天皇制の確立」, 『歴史評号論』 298号, 1975, 2 ; 坂本孝治郎, 「象徴天皇制のパフォーマンス」, 東京: 山川出版社, 1989를 참조.

촌을 방문하고, 그들 국민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친히 담화를 섞어 가면서 그들에게 갖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행(還幸) 후에는 널리 국민에 대하여 희생적 정신의 발휘, 국민적 책임의 자각 및 민족 장래의 희망에 관여하여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진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고유(告諭)를 내려야 할 것이다.³⁷⁾

이렇게 해서 미일 간의 ‘포용’으로 연명하고 존속한 천황과 천황제가 미국의 충실한 ‘괴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존속하게 되지만, 점령군의 ‘불가시화’로 인하여 일반 민중은 상징천황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본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언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하여 천황의 전쟁책임과 희생자로서의 아시아는 더욱 더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지고 ‘평화주의자’ 천황이라는 새로운 신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지프 그루(Joseph Grew), 보너 펠러스, 그리고 일본의 ‘궁중그룹’을 비롯하여 데라사키 히데나리(寺崎英成), 세키야 데이자부로(関屋貞三郎), 가와이 미치(河井道) 등과 같은 황실의 주변 인물들이 상호 긴밀한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역사무대의 이면에서 천황이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전쟁책임 면책과 천황제의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³⁸⁾ 그러나 점령기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상징천황제의 존속은 미일 간의 정치공작이나 막후 인물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 일본인은 상징천황으로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천황에 대하여 ‘종순’(從順)하고 있었다. 미국의 지일파와 맥아더는 천황제를 폐지할 경우 민중이 점령정책에 저항하거나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실 그러한 가능성

37)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의 영어교사 브라이스가 번역한 문서(木下道雄, 『側近日誌』, 『文芸春秋』, 1989. 4. 308쪽).

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패전 후 '귀축미영'에 대한 증오심과 공포심이 급속하게 친근감으로 바뀐 것이 천황제 존속이 명확해진 도쿄재판 판결 후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를 재빨리 수용하면서도 변함없이 천황에게 '종순'하는 민중의 모습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고 나아가 스스로 '가해자'로서의 전쟁책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⁹⁾ 결국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에 대한 대다수 일본국민의 '침묵'과 천황에 대한 변함없는 '종순' 속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국화와 칼』과 같은 문화론의 언설이 뿌리를 내리면서 상징천황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이며 고래로부터 평화적이었다고 하는 새로운 신화가 정착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통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점령기 미국과 일본의 '합작'에 의해 탄생한 상징천황제가 일본이 독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린아시아를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의 '포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3. 상징천황제와 미일안보

상징천황제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배경으로 탄생한 미일 '합작'의 소산이지만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를 일본의 고유한 전통으로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보았던 『국화와 칼』뿐만 아니라 '천황불친정'의 전통이라는 상징천황제의 이론적

38) 황실과 미국의 인맥관계에 東野真, 『昭和天皇 — 二つの独白録』; 岡本嗣朗, 『陛下をお救いなさいまし : 河台道とボナーフェラス』; 吉田裕, 『昭和天皇の終戦史』;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 升味準之輔, 『昭和天皇とその時代』, 東京: 山川出版社, 1998; 高橋紘・鈴木邦彦, 『天皇家の密使たち』, 東京: 徳間書店, 1985 등 참조. 또한 황실의 기독교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벤=아미-시로니-, 『母なる天皇』; 鬼塚英昭, 『天皇のロザリオ』, 東京: 成甲書房, 2006 참조.

39) 전후 민중의 천황에 대한 변함없는 '종순'에 관해서는 박진우,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과 민중』,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참조.

근거를 제시한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와 같은 천황제옹호론자들의 역할이 있었다.⁴⁰⁾ 상징천황제는 일본국헌법의 제정 공포로 그 법적인 근거가 부여되었지만 쓰다와 와쓰지는 상징천황제를 수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일본의 전통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천황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천황불천정론’이나 일본국헌법에서의 천황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보와 관련하여 수상과 외상의 ‘내주’(內奏; 왕에게 하는 은밀한 보고)를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었다.⁴¹⁾ 이러한 천황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한 대미의존적인 안보의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1947년 5월 3일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직후인 5월 6일 천황은 맥아더와의 네번째 회견에서 “일본국민은 신헌법이 군대를 금지하고 전쟁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하여 맥아더는 천황에게 “미국이 일본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⁴²⁾ 또한 같은 해 9월에 궁내청 어용괘(御用掛) 데라사키 히데나리가 GHQ의 정치고문 시볼트(W. J. Sebald)에게 ‘오키나와의 장래

40) 쓰다 소우키치와 와쓰지 데쓰로의 상징천황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道場信親,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제7장, 제9장 및 赤坂憲雄, 『象徴天皇という物語』, 東京：筑摩書房, 1990 ; 米谷匡廣, 『津田左右吉と和辻哲郎の天皇論』, 網野善彦 外編, 『天皇と王權を考える』 1, 東京：岩波書店, 2002 참조. 특히 미치바는 그들의 논의가 헌법상의 상징천황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징천황제의 존재가 그들의 언설을 성립가능하게 했다는 점의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189쪽).

41) 히로히토가 전후에도 계속해서 각료의 내주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進藤栄一 編, 『芦田均日記』, 第2巻, 東京：岩波書店, 1986 및 入江爲年 編, 『入江相政日記』, 第5巻, 東京：朝日新聞社, 199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주는 천황이 아키히토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후천황제와 ‘내주’에 관해서는 케네스 루오프, 『国民の天皇：戦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東京：共同通信社, 2003, 제3장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원제는 *The People's Emperor: Democracy and the Japanese Monarchy, 1945-1995*). 히로히토는 1970년대까지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적막이’(赤子)라고 표현하는 등 여전히 전전의 ‘절대군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海図にない航海』, 『毎日新聞』 2009. 1. 7).

42) 1947년 5월 7일자 AP통신의 특종보도. 이 보도에 맥아더는 격노하여 이튿날 이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통역을 맡았던 오쿠무라 가쓰조(奥村勝蔵)는 정보누설의 혐의로 징계 면직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升味準之輔, 『昭和天皇とその時代』, 267~269쪽에 상세하다.

에 관한 천황의 생각'으로 전한 이른바 '오키나와 메시지'에서 천황이 "미국이 오키나와와 그 밖의 류큐제도의 군사점령을 계속할 것을 희망한다. …… 미군의 군사점령은 일본에 주권을 잔존시킨 형태로 장기—25년 내지는 50년, 혹은 그 이상—대여한다는 의제(擬制)에 의거해야 한다"⁴³⁾라고 발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⁴⁾

1979년에 발견된 이 '오키나와 메시지'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지만, 후일 천황이 이리에 스케마사(入江相政) 시종장에게 "미국이 점령해서 지켜 주지 않았으면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일본 전토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⁴⁵⁾고 발언한 것은 당시 일본의 안보를 우려한 자신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미일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그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극단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점령 후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국헌법에 '전쟁포기'가 명시된 상황에서 일본이 독립하고 점령군이 철수한 후 일본이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불안감이 천황을 적극적으로 대미종속적인 미일안보에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⁴⁶⁾

43) 이 메시지는 1979년 신도 에이이치(進藤栄一)에 의해 발견되었다. 進藤栄一, 『分割された領土：もう一つの戦後史』, 東京：岩波現代文庫, 2002, 66~67쪽.

44) 이 밖에도 1948년 12월 12일 천황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도쿄재판의 수석검사 조지프 키난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 앞으로 전한 메시지에서는 "입헌 군주로서의 입장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본국민들 사이에도 육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고 싶다"(『朝日新聞』 1948. 12. 4)라고 말하고 있으며, 천황의 이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네스 루오프, 『国民の天皇：戦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95~96쪽을 참조.

45) 천황이 이 발언을 한 날은 1979년 4월 19일로서 이 날이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이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된 날이기도 하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천황의 발언은 전날 밤 이리에 시종장이 "오키나와가 미국에 점령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당장 답하지는 않았지만, 이튿날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복잡한 심경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 발언의 앞부분에서는 "정체스가 점령에 가담하지 않고 소련도 들어오지 않았다. 독일이나 조선과 같이 분열국가가 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다(入江爲年編, 『入江相政日記』 第5巻, 419쪽).

46) 천황이 미일안보에 의존하기 위해 적극적인 '천황외교'를 전개한 점에 관해서는 豊下橋彦, 『安保條約の成立：吉田外交と天皇外交』, 東京：岩波新書, 1996 참조.

천황이 점령기부터 미일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은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櫛彦)의 가설에서도 지적되었다. 도요시타는 천황이 신헌법 하에서 상징천황이 된 후에도 맥아더와 단독으로 수차례 회견하여 미국의 일본지배를 요청하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게 안보조약의 조기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추론하면서 전후 미일동맹관계의 기본틀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상징천황제 하의 히로히토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전쟁에 직면하여 천황 측은 “한국전쟁의 귀추와 천황제의 장래를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이미지를 가지고 ‘직결’시켜 인식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것이 천황의 적극적인 미국 접근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⁴⁷⁾

이러한 도요시타의 가설은 최근 미일안보와 관련하여 천황의 발언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한층 뒷받침되었다. 2005년 릿쿄대학(立教大学)의 나카기타 고우지(中北浩爾) 교수가 미국의 후버연구소에서, 오키나와국제대학(沖縄国際大学)의 요시쓰구 고스케(吉次公介) 교수가 미국국립공문서관에서 각각 발견한 새로운 사료에 의해 일본이 독립한 후에도 천황이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이나 미군 간부에게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미국의 일본 원조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정치성’이 농후한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⁴⁸⁾

후버연구소에 소장된 로버트 머피 주일미국대사가 남긴 공문서에 의하면 천황은 한국전쟁이 휴전에 임박한 1953년 4월 20일 미국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 “한국전쟁의 휴전과 국제적인 긴장완화가 일본의 여론에 주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일본 국내의 압력이 고조될 것이지만 나는 미군의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47) 豊下櫛彦, 『安保條約の成立 : 吉田外交と天皇外交』, 208-210쪽.

48) 『昭和天皇が「米重視」の發言 米で公文書6点見つかる』, 『朝日新聞』2005. 6. 1.

고 발언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신감을 표명하는 한편,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로버트 머피 대사에게 제시한 일본·한국·대만의 반공제휴구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쿠바위기 직후인 1962년 10월 31일자 제이콥 스마트 재일미군사령관이 펠트 태평양군사령관 앞으로 보낸 전보에 의하면 전날 황궁에서 개최된 원유회에서 천황은 스마트 사령관에게 접근하여 “최근의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평화적인 결과에 안심했다.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칭송과 존경을 표한다.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이 그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1972년 3월 2일자로 추정되는, 재일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에 이민 마이어 주일미국대사와 회견한 천황이 대사에게 “미중 접근과 세계의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아시아평화에 있어서 미일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크게 감동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하고 있다.⁴⁹⁾

천황은 일본국헌법에서 정치적 행위나 발언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의 '절대군주'와 같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미일안보에 대한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천황의 발언은 헌법 위반과도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로 그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내정과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천황의 미일안보에 대한 관심은 일관해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보수정권을 배후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황의 입장에서는 전쟁책임 면책과 천황제의 온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

49) 이상의 인용은 앞의 기사 「昭和天皇が「米重視」の發言 米で公文書6点見つかる」에 의한. 요시쓰구 고스케는 이러한 사료가 천황이 냉전체제 하에서 일관해서 미일안보조약과 미군의 주둔을 극히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황이 실제로 외교에 미친 영향이나 천황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특히 일본 측의 사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가 무너지고 공산화될 경우 일본 국가는 물론이고 천황제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포함한 천황제의 존속을 위해서 패전 후 재빠르게 변신하여 일본을 반공의 방파제로 미국의 보호 아래 두는 미일안보동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귀축미영’ 미국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수백 명의 일본인과 그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수천만 아시아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언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한 천황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평화주의자로 미화되고 칭송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그가 말하는 ‘평화’의 실현은 오로지 미일안보의 틀 속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 천황의 이름으로 파괴된 ‘아시아의 평화’가 아직도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전쟁책임 면책에 만족하지 않고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의 공산화를 극도로 우려하면서 미국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기를 자처한 ‘상징’적인 천황이며, 매킨맥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보수질서의 고정편으로서의 도쿄의 미국인”⁵⁰⁾이었다.

1989년 1월 7일 ‘쇼와의 종언’은 냉전의 종결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천황의 반공주의와 대미의존적인 자세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히로히토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다음 천황인 아키히토에게 계승되고 있다. 그것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평화주의의 신화가 한 세트가 되어 탄생한 상징천황제의 속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동유럽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키히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곧바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만,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비에트연방의 지배 하에 들어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전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⁵¹⁾라고 하여 마치 일본의 보수정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50) 개번 매킨맥, 『중속국가 일본』, 28쪽.

있다. 어떻게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인식 배경에 공산주의는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이라는 선입관과 그 대극에 있는 일본은 전후 미국의 도움으로 번영을 누리는 평화국가라는 인식이 있으며, 그런 천황의 인식은 대다수 일본인의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인식과도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냉전체제 붕괴 후 미국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근린아시아의 신용을 상실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위협'과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한층 더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하고 있으며⁵³⁾, 아키히토 자신도 여전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천황은 미군의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대해 미일이 합의한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키나와를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는 오키나와인의 심정을 배려하면서 양국 정부 사이에서 충분히 협력하여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하여 클린턴은 "오키나와인의 심정은 잘 알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미일국민의 우정을 소중히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⁵⁴⁾ 여기서 천황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전쟁 막바지에 오키나와가 겪었던 처절한 희생과 미군기지의 철거를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은 미일안보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텐

51) 『朝日新聞』, 2002. 6. 20.

52) 상징천황제와 평화주의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박진우, 『상징천황제의 평화이데올로기와 전쟁책임』, 김학이·김기봉 외 편,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세종출판사, 2006 참조.

53) 냉전체제 붕괴 후에도 일본이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는 북한과 중국의 존재가 클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매킨맥은 북한에 위협이 없었다면 일본인은 '대테러세계전쟁'에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나 그 밖의 나라에서 미국의 괴뢰정권을 수립하려고 군사와 재정 면에서 일본의 지원을 요구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에 복종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신용을 잃고 고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개번 매킨맥, 『중속국가 일본』, 제5장 참조).

54) 『産経新聞』, 1966. 4. 17. 夕刊.

마 기지의 반환에 합의를 본 것이며 이러한 안보의 '재정의'를 위한 세리머니 속에 천황과 클린턴의 회담이 있었던 것이다.⁵⁵⁾ 그런 의미에서 천황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정치성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미일안보와 관련하여 천황의 정치성 있는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4월 미국의 체니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군사·재정 면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아키히토는 체니 부통령과 가진 회견에서 "자위대는 급수, 학교의 복구, 의료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업을 통해서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며 무사히 이라크인들의 행복에 공헌하기를 바랍니다"⁵⁷⁾라고 하여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천황의 발언은 고이즈미 정권의 '각본'에 의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대미종속적인 군사행동에 천황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아키히토 천황 자신도 적극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천황의 발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이나 이라크에서의 저항군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 살육의 진상을 외면하게 만들고 대다수 일본인들이 자위대의 파병을 납득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미국과의 '협작'에 의해 탄생한 상징천황제는 냉전체제가 붕괴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포용'을 계속하면서 냉전기에 은폐되고 소거되어 왔던 역사적 진실의 덮개를 짓누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폐와 소거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5) 天野惠一, 『日の丸 君が代じかけの天皇制』, 東京: インパクト出版会, 2001, 97쪽.

56) 천황의 발언에 대하여 『마이니치신문』은 "폐하가 회견에서 정치성 있는 화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평소부터의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毎日新聞』, 1996. 4. 17. 夕刊)고 했으며, 『오미우리신문』은 "오키나와에 깊은 배려를 품은 폐하의 심정을 잘 나타낸 발언" 『読売新聞』, 1966. 4. 17. 夕刊)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

57) 『天皇 皇后兩陛下 チェイニー 米副大統領夫妻と会見』, 『毎日新聞』, 2004. 4. 13.

아키히토의 평화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황위의 계승과 함께 부왕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아키히토가 되풀이해서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부왕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외면하고 평화주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와 모순은 1994년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먼저 '태평양전쟁 종결 50주년'을 1년 앞두고 쇼와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키히토는 "쇼와천황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만,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일본의 진주만공격의 정당성과 하와이에서 미국 국민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답을 회피하면서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평화국가로서 살아갈 것을 결의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면서 세계 각국들과 협조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깊은 관계에 있는 미국 국민과 상호이해에 의거한 우호관계가 한층 증진되기를 바랍니다"⁵⁸⁾라고 답하여,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아시아 각지의 전쟁에 가담한 사실을 무시한 채 공허한 평화주의를 남발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신뢰와 이해보다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상징천황제의 탄생의 기원에 기인하는 속성은 아키히토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58) 이상 천황의 발언은 궁내청 홈페이지(www.kunaicho.go.jp)에서 '天皇后兩陛下の記者会見' 항목의「アメリカ合衆国ご訪問に際し」(平成 6年)에서 인용. 회견일자는 1994년 6월 3일. 아키히토는 황대자 시절부터 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천황에 즉위한 후에는 거듭해서 전쟁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되풀이해서 표명해 왔지만 전쟁 책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1990년 이후 전쟁과 관련해서 애도를 표명한 아키히토의 발언에 관해서는 田中伸尚, 「明仁天皇の十年」, 第3回, 『週刊金曜日』 256, 1996. 2. 26 참조.

4. 미일 '포옹'의 표상으로서의 상징천황제

일본의 일방적인 대미종속적인 자세만으로는 미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계속해서 일본의 애매한 전쟁책임을 묵인하고 일본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는 미국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속적인 '포옹'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심리적으로 아시아와 거리를 두면 결코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할 것⁵⁹⁾이라고 분석한 미국은 점령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천황제와 천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역할은 일본의 '황실외교'에 대한 대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국제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근린아시아를 외면하고 서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황실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한, 유럽의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천황 방문에 대한 반응은 미국의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1953년 황태자는 3월부터 10월에 걸쳐 영국여왕의 대관식 참석을 주된 목적으로 유럽 10여 개국과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것은 곧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이 국제친선을 명분으로 '황실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출발점이 되었지만, 여기에 아시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실로 "일본의 지도층이 품고 있던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전후관"⁶⁰⁾이었다. 당시 황태자의 서구 순방에 13개 보도기관에서 24명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수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황태자의 외국 방문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일본의 관심은 오로지 황태자

59) 개빈 매코맥, 『종속국가 일본』, 40쪽.

60) 케네스 루오프, 『국민의천황 : 戰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290 쪽.

의 유럽과 미국 방문을 통해서 서구사회가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었으며 그것은 곧 일본의 자신감 회복과도 관련되는 문제였다. 이런 일본의 시야에 근린아시아가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대부분의 매스컴은 “패전 직후의 일본인이 자신을 5등 국민이라고 비하한 것과 같은 굴욕감은 전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다”⁶¹⁾고 보도하면서 가능하면 황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호의적 반응을 보도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미국 방문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황태자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점령기 황태자의 가정교사였던 바이닝 여사가 자택에 초대하는 등의 전반적 환영분위기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미국인과 달리 영국인은 깨끗하게 과거를 흘려버리는 따위는 쉽게 하지 못하는 성질”⁶²⁾이라는 신문기자의 말처럼 영국에서는 황태자 방문에 대한, 구 전쟁포로 등을 중심으로 한 항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었다.⁶³⁾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런 차이는 거의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히로히토 천황이 유럽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히로히토 천황이 재위기간 중에 외국을 방문한 것은 1971년의 유럽과 1972년의 미국 방문 단 두 차례뿐이었다. 히로히토가 패전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의 외국 방문을 유럽 7개국과 미국으로 삼았던 것은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와는 거리를 두고 ‘탈아입구’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언론 각지에서는 유럽 방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풍부한 국제 감각과 친근감 넘치는 인간성을 가지신 양 폐하가 유럽 각국의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전전 이래의 일본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을 일소할 것”⁶⁴⁾이라든가, 또는 “천황은 비정치적인 지위에 있

61) 『お歸りなさい ご苦労さま!』, 『週刊読売』 1953. 10. 25.

62) 島田巽, 『イギリス人と皇太子 まだある戦時中の憎惡』, 『週刊朝日』 1953. 6. 7.

63) 영국에서의 항의활동은 여왕과 처칠의 공식성명으로 황태자 방문 직전에 수습되었다. 케네스 루오프, 『国民の天皇 : 戦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294쪽.

64) 『日本經濟新聞』 1971. 9. 27.

기 때문에 국제친선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하실 분”⁶⁵⁾이라고 하여 유럽 방문을 계기로 ‘군국주의자’ 히로히토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유럽 방문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유럽에서의 친황에 대한 이미지가 ‘군국주의자’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과학자’로 변하고 있다거나,⁶⁶⁾ 또는 해양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는 ‘친절한 할아버지’의 인상을 주었다고 전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친황의 유럽 방문에 대한 취재보도는 대부분이 유럽 각국에서 친황과 황후가 열렬하게 환영받고 있는 모습을 전하면서 전쟁의 기억과 관련된 현지의 또 다른 실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었다.⁶⁸⁾

그러나 ‘황실외교’를 통해서 침략전쟁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상징친황제의 평화주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친황의 유럽 방문은 과거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언론에서는 히로히토를 히틀러와 같은 부류의 ‘비열한 전쟁범죄인’이라고 비난하였으며 “강하고 웅변한 침묵, 영국을 대변하는 침묵”이라고 하여 히로히토에 대한 냉담한 분위기를 전했다.⁶⁹⁾ 네덜란드에서는 히로히토를 ‘히로히틀러’라고 부르며 히노마루를 불태우고, 친황이 탑승한 의전차량에 물병을 던져 앞 유리에 금이 가

65) 『朝日新聞』, 1971. 9. 26.

66) 『朝日新聞』, 1971. 10. 1

67) 『読売新聞』, 1971. 10. 2.

68) 영국에서는 친황의 기념식수가 뽐히는 사건이 있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를 향해 물병을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毎日新聞』, 1971.10.15) 또한 서독에서는 친황의 방문을 반대하는 데모로 대학생들이 체포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축소 보도되었다. 친황방문 반대 데모에 대한 보도는 『朝日新聞』, 1971. 10. 7, 석간, 『毎日新聞』, 1971.10. 8, 석간, 『読売新聞』, 1971. 10. 9 참조. 1998년 아키히토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과거의 전쟁으로 갖가지 형태로 고난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기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할 때 마음 깊이 아픔을 느낍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이때에도 구 포로들은 이 사지가 불충분하다고 친황의 방문에 항의했다(ベン＝アミー シロニー, 『母なる天皇』, 394쪽).

69) 케네스 루오프, 『國民の天皇：戦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206쪽; 入江爲年 編, 『入江相政日記』, 第4巻, 310~311쪽 참조. 영국여왕의 환영만찬사에 대한 답사에서 히로히토는 과거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영국 언론으로부터 “일본은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라는 빈축을 샀다(高橋紘, 『天皇家の仕事－読む(皇室辭典)』, 東京: 文芸春秋, 1996. 128쪽).

기도 했다.⁷⁰⁾ 심지어 네덜란드의 쿡이라는 이름의 농민정당 지도자는 암스테르담의 검찰국에 히로히토가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⁷¹⁾ 한층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유럽 방문을 수행했던 이리에 스케마사(入江相政) 시종장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천황의 방문에 항의하는 분위기는 히로히토 본인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항의에 직면한 히로히토는 이리에 시종장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일본의 신문, 방송이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라. 저것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다소 속이 후련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친선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내 뜻을 잘 전하도록 하라”⁷²⁾고 하여 ‘진정한 친선’을 명분으로 또 다른 은폐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편 1975년 히로히토의 미국 방문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항의나 차가운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포옹’ 아래 전쟁의 기억을 은폐하고 소거하는 히로히토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었다. 히로히토의 방미는 1971년 유럽 방문길의 경유지 앵커리지에서 당시 닉슨 대통령과 회견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당시 닉슨의 중국 방문과 달러방위조치, 그리고 미일섬유 문제로 인한 미국 산업계의 반일감정 등으로 균열이 생긴 미일관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 천황의 방미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⁷³⁾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서는 닉슨의 방중계획 발표와 달러방위조치로 “대다수 일본인이 미일관계의 장래에 의문을 품고 있는 지금, 앵커리지에서의 회견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수단이며, 나아가 수백만의 미국인이 앵커리지에서 닉슨 대통령이 천황을 미

70) 岸田英夫, 『天皇と侍従長』, 東京: 朝日文庫, 1986, 250쪽.

71) *Leidse Courant*, 1989. 1. 7. (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3, 東京: 凱風社, 1989, 60쪽).

72) 岸田英夫, 『天皇と侍従長』, 251쪽.

73) 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 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年報近代日本研究』20, 1998, 215쪽.

국에 초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⁷⁴⁾는 기사를 싣고 있었다. 같은 날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도 당시 국무성 최고 간부가 미일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천황의 방미와 닉슨의 방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⁷⁵⁾

일본에서는 궁내청 측이 미일 간의 경제관계 대립과 베트남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천황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야당의 공세 등을 우려하여 천황의 방미를 반대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토 수상은 미일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방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듬해 1972년 다나카 내각 성립 후에도 천황 방미의 막후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고 일본에서는 다나카 내각이 금맥정치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임함으로써 천황의 방미 문제는 일본의 미키 정권과 미국의 포드 정권 하에서 1975년 9월에야 실현을 보기에 이른다.⁷⁶⁾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천황의 방미가 실현되었던 것은 그만큼 천황의 미국 방문이 미일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미일 양국의 지배층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미일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천황의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975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천황의 미국 방문은 유럽 방문에서의 경험을 살려 ‘인간 천황’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미국과의 전쟁에 관한 기억을 청산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 실제로 천황이 미국 방문에서 보여 준 갖가지 퍼포먼스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학자천황’

74) *New York Times*, 1971. 8. 21(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 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216쪽에서 재인용).

75) 『朝日新聞』 1971. 8. 21(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 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215쪽에서 재인용).

76) 이상의 천황 방미의 정치과정에 관해서는 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 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215~221쪽 참조.

이라는 이미지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부류로 인식되고 있던 히로히토상을 타파하는 데 효과적⁷⁷⁾이었다고 평가될 정도였다. 그리고 천황의 방미에서 미국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백악관 만찬에서의 전쟁의 기억에 대한 ‘발언’이었다. 여기서 히로히토가

저는 오랫동안 귀국의 방문을 염원해 왔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실현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반드시 귀국민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깊이 슬퍼하는(I deeply deplore) 저 불행한 전쟁 직후에 귀국이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 따뜻한 호의와 원조를 베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귀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⁷⁸⁾

라고 언급한 부분은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이를 계기로 ‘진주만의 원한’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⁷⁹⁾ 그러나 천황의 이러한 발언도 실은 전쟁책임 문제를 애매하게 청산하고 미일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려는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천황과 천황제의 전쟁책임을 은폐하고 소거하는 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황의 “내가 깊이 슬퍼하는 저 불행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아시아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황의 방미는 미국에서의 천황의 전쟁책임론에 종지부를 찍고 미일우호의 상징으로서 중

77) 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219쪽.

78) 『朝日新聞』, 1975.10. 3, 석간. 강조는 인용자.

79) 岸田英夫, 『天皇と侍従長』, 255쪽. 이 언급을 계기로 ‘진주만 생존자협의회’에서는 “일본국민에게 원한은 없다. 모두 흘려보내자”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佐道明廣, 「〈皇室外交〉に見る皇室と政治：日本外交における〈象徴〉の意味」, 220쪽).

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선전되었으며 그것은 일본인들의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인식마저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천황이 귀국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깊이 슬퍼하는 저 불행한 전쟁”이라는 발언은 전쟁책임을 인정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의 표현에 관해서는, 나는 그러한 문학방면은 그다지 연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⁸⁰⁾라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사실은 유명하다. 그러나 천황의 무책임한 답변이 많은 일본인들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이나 천황제 비판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천황의 무책임한 발언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은 없다’와 ‘무어라 말할 수 없다’가 합계 56.6%에 달하였다.⁸¹⁾ 이는 곧 과반수 이상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⁸²⁾ 천황의 전쟁책임을 은폐하고 소거하는 데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히로히토 혼자만이 아니라 일본국민들도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황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포옹’은 천황의 외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반응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9월 19일 히로히토의 병상악화가 보도된 이래 일본열도는 기이한 과잉지속에 빠져들었다. 이듬해

80) 『朝日新聞』, 1975. 11. 1.

81)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東京: 岩波書店, 1995, 162~163쪽.

82)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는 천황의 이러한 발언에 관하여 천황이 ‘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황조황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천황이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한다(保阪正康, 『昭和天皇, 敗戦からの闘い』, 東京: 毎日新聞社, 2007, 264쪽). 그러나 그것은 천황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황조황종’이라는 전통을 내세워 천황의 ‘책임’을 부인하는 변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1989년 1월 7일 천황이 사망하기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갖가지 기이한 현상들은 일본인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⁸³⁾ 일본에서의 기이한 지속현상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일본과의 전쟁을 경험한 영국, 네덜란드, 또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중국, 한국, 기타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천황 보도'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천황의 전쟁 책임을 엄중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지속현상이 일본제국주의의 망령과 함께 상기되어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⁸⁴⁾ 영국의 일간지 『더 선』(*The Sun*)에서는 '지옥은 실로 사악한 본성의 천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병상의 히로히토를 슬퍼하는 두 가지 이유는 히로히토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금세기 최대의 비열한 범죄의 벌을 받지 않고 죽어 가는 점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실었다.⁸⁵⁾ 또한 『데일리 스타』(*Daily Star*)에서는 "히로히토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히틀러보다도 악질적인 학살자로 간주되었으나 죄값을 치르지 않고 면죄되었다"고 하면서 "수천 명의 연합국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히로히토는 지금도 여전히 무자비한 악의 심벌"이라고 저주하는 글을 실었다.⁸⁶⁾ 이러한 영국에서의 '천황 보도'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비판적인 논조를 자제하고 있었다. 미국의 태평양군 관계자를 독자층으로 가지는 『퍼시픽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Pacific Stars & Stripes*)에서는 '미국이 지지한 근대적 헌법' 하에서도 '황실의 신비적' 분위기와 터부를 지키는 궁내청의 비밀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대상제(大嘗祭)를

83) 천황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본열도에서 나타난 과잉자속 현상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栗原彬·杉山光信·吉見俊哉 編, 『記録 天皇の死』, 東京: 筑摩書房, 1992; 岩波新書編集部 編, 『昭和の終焉』, 東京: 岩波書店, 1989.

84) 「일본의 천황 고개를 쳐드는 국수주의」, 『동아일보』 1988. 9. 23; 「히로히토가 생전에 했어야 할 일」, 『한겨레신문』 1988. 10. 7; 「일본의 천황 신드롬」, 『한국일보』 1988. 10. 17; 「일황신드롬」, 『중앙일보』 1988. 10. 10 등.

85) *The Sun*, 1988. 9. 21(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東京: 凱風社, 1988, 30쪽).

86) *Daily Star*, 1988. 9. 21(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31~33쪽).

예로 들어 소개하는 한편,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⁸⁷⁾ 『뉴욕타임스』도 천황의 죽음에 임박하여 일본에서의 지나친 과잉지속과 천황의 장례식, 새로운 천황의 즉위식 등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과거 GHQ의 통역을 담당했던 파비온 바워즈가 쓴,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⁸⁸⁾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에 관해서도 “히로히토를 가장 중요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던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도 제2차 세계대전 시 열강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지도자의 장례식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를 즉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피력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⁸⁹⁾

이러한 대조적인 논조는 1989년 1월 7일 히로히토가 사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히로히토 사후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⁹⁰⁾ “한국과 한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장례 행렬에 가담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여 ‘전범의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펼쳤다.⁹¹⁾ 뉴질랜드의 국방상은 히로히토의 죽음에 대하여 “일본의 군주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처형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뉴질랜드가 어떤 형태로든 조의를 표명하는 것은 나로서는 지극히 불쾌한 일”이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히로히토의 죽음에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87) *Pacific Stars & Stripes*, 1988. 10. 18(아시아民衆法廷準備會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43~45쪽).

88) *New York Times*, 1988. 9. 30. 여기서 바워즈는 천황과 맥아더의 회견을 회상하면서 부하들을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천황의 사심 없는 순결한 태도에 감동하여 맥아더가 천황의 면책을 결의했다고 하는 천황 = 평화주의자의 틀에 박힌 '신화'를 되풀이하고 있다. 코넬대학의 사카이 나오키는 야마구치 지로와 함께 이에 대하여 『히로히토의 전시 중의 역할을 감상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뉴욕타임스』에 투고하여 1988년 10월 11일자 투고란에 실렸다. 논쟁의 상세한 내용은 『朝日ジャーナル』, 1988. 12. 2 참조.

89) *New York Times*, 1988. 10. 30(아시아民衆法廷準備會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45~47쪽).

90) 『히로히토의 죽음 뒤에 오는 것』, 『한겨레신문』, 1989. 1. 8; 『昭和時代の 종막 : 그들의 '천황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동아일보』, 1989. 1. 9).

91)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1989. 1. 10. 참고로 1989년 2월 24일의 장례식에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가 파견되었다.

고 하면서 히로히토의 비도덕성을 비난했다.⁹²⁾ 네덜란드에서도 태평양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는 그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고 하면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네덜란드인은 강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네덜란드 특유의 표현으로 “가능하다면 그의 피를 마셔보고 싶다” 고까지 생각한다고 하여 히로히토에 대한 저주와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⁹³⁾

이러한 전반적인 비난과 증오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극력 억제되고 있었다. 사카이 나오키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대중매체에서 천황의 이미지는 놀랄 정도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반일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황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점령국과 피점령국과는 다른 새로운 미일관계의 상을 미국국민에게 교육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⁹⁴⁾ 『뉴욕타임스』에서는 천황의 평화주의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고 전수방위(專守防衛)와 상징천황제를 규정한 현행헌법은 일본인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전하고 있었다.⁹⁵⁾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도 “황실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과격한 내셔널리스트가 여론조작에 착수하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현실이 된 사례는 적지 않다”⁹⁶⁾고 하여 과거 우익의 쿠데타를 상기시키는 기사를 싣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이 전혀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나가사키 시의회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한 공산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

92) *The New Zealand Herald*, 1989. 1. 9, 1. 10; *The Canberra Times*, 1989. 1. 10(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2, 36~38쪽).

93) *Leidse Courant*, 1989. 1. 7(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3, 60쪽). 물론 이러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비판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주주의적인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94) 사카이 나오키, 「자기도취로서의 천황제」, 160쪽.

95) *New York Times*, 1989. 1. 8.

96) *Wall Street Journal*, 1989. 1. 9.

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나가사키 시장은 연일 우익들의 항의와 위협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윽고 우익의 총탄세례를 받아야 했다. 캐롤 글러이 지적하듯이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의 ‘천황현상’을 일본 내셔널리즘과 결부시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매스컴도 여기에 맞추어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의 특유한 습관⁹⁷⁾으로 전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 물론 미국의 언론이 일방적으로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찬미한 것은 아니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The Los Angeles Times*)에서는 미국과 영국 정부소식통의 부시 대통령과 필립 공의 장례식 출석 결정을 변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히로히토의 전쟁책임 문제를 다루었다.⁹⁸⁾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논의의 대부분은 진주만공격으로 시작되는 미일전쟁에서의 천황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전부터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관한 시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⁹⁹⁾

이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를 미일전쟁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히로히토의 죽음에 대한 근린아시아의 비판적인 반응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사카이의 말처럼 일본에 의한 아시아 침략을 정면에서 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전후처리와 베트남전쟁으로 대표되는 50년대, 60년대의 대아시아 정책,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중남미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¹⁰⁰⁾ 결국 일본의 침략전쟁과 천황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봉인해 버린 ‘공범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천황의 전쟁책임을 적극적으로

97) 「天皇をみつめる世界(4) 日本人の「変化」に注目」、『読売新聞』, 1989. 1. 11).

98) *The Los Angeles Times*, 1989. 2. 18(『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3, 88~94쪽).

99) *New York Times*, 1989. 2. 16에는 ‘히로히토에게 고발을! 임시특별위원회’에 의하여 ‘또 하나의 히틀러, 히로히토의 소안을 벗긴다’는 제목의 전면 의견광고가 실렸다. 여기서도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고발하는 내용은 1931년 만주사변부터의 천황의 전쟁관여, 가스세균전, 남경학살 등이며, 그 이전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천황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의견광고 내용은 『アジア民衆法廷準備會 編, 『海外紙誌にみる天皇報道』, 3, 144~147쪽 참조).

100) 사카이 나오키, 「자기도취로서의 천황제」, 163쪽.

로 추궁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천황의 와병과 죽음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천황의 장례식을 미일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조문사절로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끝까지 묵과하고 은폐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¹⁰¹⁾

5. 맺음말

상징천황제는 일본의 국민적 전통과 문화적 통일성의 상징이며 쇼와천황은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신화는 미국의 일본 점령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전통’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상징천황제는 일본국민의 통합을 강화하여 미국의 점령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립한 후에도 미국과의 ‘포용’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요체로서 기능하면서 전쟁책임의 본질을 애매하게 하고 근린아시아와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상징천황제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책하고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천황의 전쟁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근린아시아와의 사이에 되풀이되는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후 미일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천황제는 미일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일까. 다변화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의 미일관계에서 볼 때 당분간 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천황제도 양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나름대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갈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갈 수 있을

101) 참고로 당시 장례식에 국가 원수급이 참석한 국가는 55개국, 왕족 이상은 12개국, 부통령 이상은 21개국, 수상급 이상은 16개국, 각료급 이상은 16개국, 합계 153개국이 참석했다.

지는 미지수이다. 그것은 상징천황제가 탄생부터 안고 있던 모순과 딜레마가 최근에 와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징천황제는 미국과 일본의 협작에 의한 '산물'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고유한 전통으로 수용되어 일본 내셔널리즘의 구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일본내셔널리즘의 구심으로서 기능하는 상징천황제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여 '친미'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다. 예를 들면 90년대 이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으로 대표되는 네오내셔널리즘의 역사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 근대 일본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도쿄재판의 '부당성'을 강변하는 반미적인 요소가 분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그들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와 딜레마를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보수우파들은 일본국헌법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군사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미종속적인 군사행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미일안보에 의존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미'를 표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당분간 북한의 '위협'을 의식하면서 종속적인 미일안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과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고이즈미 정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고이즈미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충실한 종속국가로서의 역할을 주저없이 감수하면서도 갖가지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보이면서 근린아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천황을 구심으로 하는 일본 내셔널리즘과 대미관계는 공존할 수 있지만 대아시아 관계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천황제와 미국의 '포용'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 경고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보수우파들의 입지는 한층 약해졌다. 그 배경에는 2000년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의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는 국제적인 여론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천황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언제 분출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보수우파들 사이에서 대미종속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계속해서 아시아를 외면하고 스스로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와 '반미'의 딜레마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아시아 속에서의 공존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시아이기를 거부하고 대미종속에 머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이 진정한 근린아시아와의 공존을 꾀하기 위해서는 미일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애매하게 봉인되어 왔던 역사를 재심하고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